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5.18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금리 상승, 기술주 약세..미국증시 일제 하락

- 옵션 만기일 미국증시 1%대 하락
- 유가 급등에 인플레 우려 확산..금리·달러↑
- 미중 정상회담 실망, 중동 리스크 재부각, 차익실현

Summary

미국증시 1%대 하락: 다우 5만선 하회

5월 15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만남이 사실상 특별한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차익 매물에 밀려 약세 마감. 국제유가와 국채금리, 달러 가치가 일제히 상승한 것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식 시장 하락 압력으로 반영됨.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07% 하락한 49,526.17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1.24% 하락한 7,408.50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1.54% 하락한 26,225.14에 거래를 마쳤고 중소형주 지수 러셀 2000은 2.44% 하락한 2,793.299에 마감.

주간으로는 다우지수가 3주만에 약세 전환해 0.17% 하락했고, S&P500 지수는 0.13% 상승해 7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함. 나스닥 지수는 0.08% 하락해 7주만에 약세 전환.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6.78% 상승한 18.43에 마감.

(다우 -1.07%, 나스닥 -1.54%, S&P500 -1.24%, 러셀2000 -2.44%)

전쟁 장기화 우려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시장은 다시 이란 전쟁 관련 우려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되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당위를 확인하는 선에서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함. 종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은 나오지 않았고 방중 일정 마무리 즈음부터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기 시작한 이란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들은 전쟁 장기화와 그로 인한 고물가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 시장을 압박함.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빨리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게될 것이라고 재차 이란을 압박했고, 중국 신화통신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할 경우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국영 언론 칸 TV를 인용해 보도.

장기물 금리 급등, 기술주 차익실현

전쟁 장기화, 긴장 재고조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병목, 그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이외에도 영국의 내부 정국 혼란으로 인한 파운드와 길트채 금리 급등은 미 국채 금리와 달러에 상승 요인-증시 약세 요인으로 작용함. 미 국채 최장기물 30년물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5%를 이미 넘어선 가운데 이날 추가 상승해 5.1%를 돌파함. 앞서 미 재무부가 현지시각 13일 실시한 250억 달러 규모 30년물 국채 신규 입찰에거 낙찰 금리가 5.046%로 결정됨. 30년물 표면금리가 5%대에 오른건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이후 18년만에 처음. 이외 10년물 금리가 4.6%에 육박하고 2년물 금리도 4%를 상회해 기술주, 그리고 중소형 성장주 매도를 자극함.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마무리된 가운데 차기 의장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란 기존의 기대도 흐려진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워시도 의장 후보 면접에서 이를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지만 물가 지표와 유가 흐름 등은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으로 그의 취임 이후 행보에 관심이 모임.

제조업 지표는 '기대 이상'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4월 산업생산이 계절 조정 기준 전달 대비 0.7% 증가해 시장 예상 0.3% 상승을 크게 상회. 산업생산의 핵심인 제조업 생산이 4월 0.6% 증가해 14개월래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선 1.3% 증가를 기록. 특히 자동차와 부품 생산이 전달 대비 3.7% 늘어나 전체 산업과 제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으며 하이테크 산업 생산은 1.0% 증가, 컴퓨터와 주변기기 생산도 2개월 연속 1.5% 증가해 제조업 생산 확대를 뒷받침. 반도체와 관련 전자부품 생산도 1.0% 증가. 다만 하이테크 산업과 자동차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0.3% 증가에 그쳐 3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 제조업과 산업 생산 증가가 일부 산업에 편중돼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

한편 뉴욕주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5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는 19.6을 기록해 전달 대비 8.6 포인트 상승, 시장 기대치를 대폭 상회. 지난 2022년 4월 이후 4년 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세부적으로 신규 주문지수가 22.7을 기록해 3.4포인트 상승, 2021년 12월 이후 최고를 기록. 강한 수요를 시사. 한편 출하지수는 18.9로 1.3포인트 하락. 기업의 투입 비용을 보여주는 구매가격지수는 62.6으로 11.6포인트 상승해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들의 판매가를 반영하는 수취가격지수는 31.8로 10포인트 상승해 2022년 8월 이후 최고를 기록. 이는 기업의 투입 비용이 높아지는 한편 기업들은 이 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 전반적으로 뉴욕주 제조업 활동이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나 가격 상승 속도가 급등하는 부분은 부담.

특징종목

반도체↓, 소프트웨어↑

최근 랠리를 주도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대거 출회됨.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4% 이상 급락했고 엔비디아(-4.42%), AMD(-5.6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62%), 인텔(-6.18%), 브로드컴(-3.32%) 등 주요 종목 대부분이 5% 내외 하락. 전일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첫 거래에서 68% 이상 폭등했던 AI 칩 업체 세레브라스 시스템스(-10.08%)도 급락 전환. 램 리서치(-4.82%), KLA(-4.68%) 등 주요 장비주도 4%대 약세를 보였으며 전일 마감 이후 호실적을 발표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0.89%)도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함. VanEck 반도체ETF(SMH)(-3.80%), RoundHill 메모리 ETF(DRAM)(-5.00%) 등 주요 ETF도 큰 폭 하락.

대형 기술주 대부분이 하락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3.05%)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시현. 이날 기관 투자자들의 1분기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한 13F 공시가 이어진 가운데 억만장자 투자자 빌 애크먼이 이끄는 퍼싱스퀘어는 1분기 마이크로소프트에 신규 투자를 집행했다고 밝힘. 빌 애크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밸류에이션을 "매우 매력적"이라고 평가. 서비스나우(+5.05%)는 익스페리언과 다년간의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강세. 자동화된 AI 에이전트 개발에 협력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이날 이외에도 세일스포스(+3.54%), 인튜이트(+3.89%), 어도비(+4.47%), 데이터 도그(+2.53%), 워크데이(+5.27%) 등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주가가 최근의 AI발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딛고 강세 마감.

유가↑, 금속가격↓

이날 업종으로는 에너지 업종 정도가 강세를 보였고 여타 종목군은 대체로 하락.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양측의 날선 발언들이 재개된 가운데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엑슨 모빌(+3.36%), 셰브론(+2.39%), 코노코필립스(+2.89%), EOG 리소시스(+3.14%), 옥시덴털 페트롤리엄(+4.89%), 데번 에너지(+4.76%), 매러선 페트롤리엄(+2.50%), 발레로 에너지(+2.44%), APA(+5.04%).

반면 유가 상승으로 국채 금리 상승이 보다 강화되고 달러 가치도 하락하면서 금, 은, 팔라듐, 구리 등 비금속/비철금속은 대체로 하락. 이에 증시에서도 관련주가 약세. 프리포트 맥모란(-4.73%), 뉴몬트(-6.25%), 벌칸 머티리얼스(-2.64%), US 골드마이닝(-2.54%), 뉴코(-2.50%), 스틸 다이내믹스(-2.27%).

이외 특징주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 상승은 비트코인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함.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78,000달러까지 하락했고 이에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 코인베이스(-7.82%), 로빈훗 마케츠(-4.41%), 마라 홀딩스(-6.40%). 다만 윙클보스 형제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스페이스 스테이션(+6.08%)은 윙클보스 캐피털 펀드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강세.

보잉(-3.80%)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약속한 보잉 항공기 구매 대수가 200대라는 소식에 전일 4% 이상 하락한데 이어 이날도 4% 가까이 하락함. 당초 시장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보잉 항공기 약 500대에 대한 구매 약속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바 있음. 실제 구매 대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자 실망 매물 출회되며 약세.

혈당 측정기 등 당뇨 관리 기기를 제조하는 덱스컴(+6.59%)은 행동주의 투자사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와 신규 독립 이사 2명 선임에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장 중 상승세를 유지.

포드(-7.54%)는 지난 2거래일 동안 20% 가량 상승한 이후 낙폭 확대. 시장에서는 최근의 주가 상승에 대해 현재의 펀더멘털보다 향후 계획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 RBC는 포드의 ESS 관련 사업부가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가량의 가치를 갖게될 것이라고 전망.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주요국 국채금리 일제히 급등

미 국채금리 가격은 급등(가격 급락)했음. 영국 국채(길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채권 시장 내 매도세가 쏟아져 미 국채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았으며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높아진 인플레이션 우려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여 금리 급등으로 이어짐.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13.60bp 급등한 4.596%를 기록,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9.20bp 상승한 4.0840%를 기록해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금리는 5.1280%로 11.60bp 상승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5.1%를 상회.

최근 정국 불안을 반영하며 글로벌 채권 시장 내에서 주요 변수로 등장한 영국 길트 수익률도 전 구간에서 급등해 30년물 수익률은 5.8536%를 기록,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함. 유로존 국채시장의 기준 역할을 하는 독일 국채(분트) 10년물 금리도 3.1698%로 전장대비 12.70bp 상승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전장 대비 10%p 가량 낮은 49.9%로 가격에 반영함. 연내 25bp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은 40% 초반대에서 40% 후반대로 높아졌으며 장 중에는 50%를 웃돌기도 함.

닷새째 '강달러'

미국 달러화 가치는 파운드화 약세로 인한 상대적 강세 요인과 커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직접적 강세 요인이 맞물려 상승.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99.293으로 전장ㄷ 대비 0.425% 상승해 지난달 8일 이후 5주만에 최고치를 기록. 장 중에는 99.319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음.

영국의 지방 선거 이후 스타머 총리의 조기 퇴진에 대한 요구가 집권 노동당 내에서 거세지는 가운데 노동당은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이자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조하는 앤디 버넘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의 경선 참여를 승인. 버넘 시장은 의원에 당선된 뒤 당 대표 경선에 참여할 예정으로 당 대표가 된다면 총리직도 맡게 될 전망. 현재 폴리마켓은 버넘 시장이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을 43%로 현직 키어 스타머 총리의 27% 대비 더 높게 반영하

고 있음. 파운드-달러 환율은 0.608% 급락했고 유로-달러 환율은 0.428% 하락.

전일 주간 거래에서 1,500.8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3.30원 하락한 1,497.5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30원)을 고려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1,500.80원) 대비 2.60원 하락한 1,496.90원을 기록.

브렌트유 110달러 근접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뚜렷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실망감에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급등. 방중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안을 거절했던 이유에 대해 "첫 문장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앞서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며 "이란이 조속히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함. 또 "그 모든 것을 이틀 안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미국과 이란간의 분위기가 다시 한 번 긴장 고조 쪽으로 가닥을 잡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20% 상승한 배럴당 105.42달러에 마감해 이달 4일 이후 최고 종가를 기록함. 이로써 한 주간 WTI는 11% 가량 상승. 7월물 브렌트유는 3.35% 상승한 배럴당 109.26달러에 마감해 110달러선에 다시 바짝 붙음.

천연가스 가격도 크게 상승해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월물은 7.48% 급등.

금리와 달러가 급등한 영향으로 국제 금 가격도 크게 하락. 시카고 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 선물 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대비 2.68% 하락한 트로이 온스 당 4,559.80달러에 거래됨. 장 중 4,513달러대까지 하락해 이달 4일 이후 최저를 기록하기도.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도 10% 안팎 크게 하락했으며 이외 백금과 팔라듐, 구리 등 귀금속/비철금속 가격이 일제히 1~4%대 하락을 기록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